

“복달임에 든든”...초복 앞둔 어르신들 ‘하하호호’

광주 어르신을부탁해 재가복지센터
서빛마루시니어센터서 삼계탕 나눔
500여명 복죽...응급의료키트도 제공

“아이고 비가 와서 더위가 좀 누그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더워. 삼계탕 한 그릇 먹으니 든든하고 기운이 막 나는 것 같아. 남은 여름 잘 나뉘어야지.”

초복을 나흘 앞둔 16일 오전 광주 서구 서빛마루시니어센터 1층 경로식당은 ‘서구지역 어르신 초복맞이 복달임 행사’에 발걸음 한 어르신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을부탁해 재가복지센터 주최·주관으로 서빛마루시니어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500여명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사랑의열매 중앙회, 글로벌실크로드케어 등도 힘을 보탰다.

이른 오전부터 센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삼계탕과 밀반찬을 정성껏 준비했고 오전 11시께부터 배식이 시작됐다.

식판 위에는 찹쌀이 가득 찬 삼계탕과 열무김치, 부추 무침, 수박화채가 정갈하게 담겼다. 갓 끓인 삼계탕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어르신을부탁해 재가복지센터는 초복을 나흘 앞둔 16일 오전 광주 서구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어르신 500여명을 대상으로 복달임 행사를 열었다. 사진은 센터 내 경로식당에서 봉사자들이 삼계탕을 배식하는 모습. /주성학 기자

을 본 어르신들의 얼굴엔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다.

국물을 먼저 한모금 들이킨 어르신은 “사~원하다”라는 감탄을 연발했고, 인근에 자리 잡은

다른 어르신들은 비닐장갑을 끼고 닭다리를 뜯으며 복달임을 즐겼다.

건강한 약재가 듬뿍 들어간 삼계탕을 맛본 어르신들은 “이게 바로 복날이지”, “삼계탕이 부드럽고 정말 맛있다”며 웃음꽃을 피웠다.

주방 안은 큰 냄비에서 닭을 꺼내 배식 코너로 건너기 바빴고,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의 식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살피며 살코기를 직접 발라주기도 했다.

금호동에서 온 최근옥(67)씨는 “가격이 많이 올라 사먹는 게 망설여졌는데, 이렇게 맛있는 삼계탕을 무료로 먹게 돼 기분이 좋다”며 “직원들과 봉사자들의 정성이 느껴져 더 감사하다”고 전했다.

풍암동에 거주하는 김모(69·여)씨는 “지난주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기력이 떨어졌었는데 삼계탕을 먹고 나니 힘이나는 것 같다”며 “다가올 무더위도 잘 이겨내보겠다”고 말했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은 물티슈와 응급의료키트 등 소정의 기념품을 받은 뒤 센터 내 문화시설로 자리를 옮겨 휴식을 이어갔다.

이선화 어르신을부탁해 재가복지센터 대표는 “서구 관내 여러 기관에서 초복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음식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참고서 베낀 시험’ 광주고교, 재시험 ‘형평성’ 논란

12문항 한정...일부 “시험 다시 치려야”

관련 규정·지침 無...“학생 피해 최소화”

광주 한 공립고등학교 정교사가 기말고사에 참고서를 베낀 문항을 출제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재시험범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A 공립고등학교의 기말고사 공통수학 시험이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위반해 전제됨을 확인, 17일 오전 문제가 된 12문항(선택형 10문항·단답형 2문항)에 대해 35분간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재시험 문항은 물의를 빚은 B 교사를 제외한

이 학교 수학교사 전체 7명이 공동으로 검토했다.

앞서 B 교사는 기말고사 공통수학 시험 22문항 중 14문항을 출제했으며 이중 12문항을 모의고사, 시중에 유통되는 참고서, 방과후시간 등에 활용된 문제를 그대로 낸 사실이 학부모, 학생 등에 의해 드러났다.

이에 해당 고교는 문제가 된 12문항에 대한 범위만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부 학부모들은 전체 문항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문항이 문제가 된 만큼 공통수학 시험 자체를 다시 치러야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재시험 범위는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사안에 따라 학교 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창균 중등특수교육과장은 “재시험은 오류가 있거나 재출제해야 할 문제들로만 한정했다”며 “나머지 정상적인 문항에 대해서 재시험을 보게 되면 더 다양한 문제와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재시험 이후 학생들의 성적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B 교사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하고 학교 관리자 및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험 문항 출제 윤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다이 기자

‘기아차 취업사기’ 노조 대의원 감형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노조 간부 시절 ‘취업사기’를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억4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받았으나,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수사기관에 고발 당했고 올해 1월 돌연 사직했다. 1심까지 A씨는 피해자 1명에 대해서 1천만원만 변제했으나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가 이뤄진 사정이 고려돼 형이 줄었다. /안재영 기자

지적장애인 폭행·협박 ‘극악무도’ 20대 실형

침 뱉고 방뇨...법원, 징역 1년 선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지적장애인에게 신체·정신적으로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의정부 소재 커피숍 외부에서 지인과 함께 지적장애인 B(20대)씨의 뒤통수에 수차례 침을 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로부터 약 1주일 만에 A씨는 서울 도봉구 한 공동 화장실에서 불일을 보던 B씨의 다리에 소변을 보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전화로 B씨를 불러내며 당장 오지 않을 시 남동생을 해치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아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같은 행동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A씨는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뒤죽으로 갈수록 내용과 글씨체가 천편인물적이고 무성의하게 변하는 점에 비춰볼 때 억지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

일 뿐”이라며 “성행이 개선됐다거나, 그럴 것으로 인정하기에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가족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B씨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행의 내용이 매우 엽기적이고 반인권적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3개월 말 100만원에 판친모 2심도 ‘징역 1년’

생후 3개월 된 딸을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매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0대·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매수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을 출산한 지 사흘 만에 광주 한 영아 입시보호소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재영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